북미에 한국의 매운맛 'K-라면' 알린다

aT, 미국서 라면 특판 행사…멕시코 한글학교서 한국요리 시연회도

올 4월 기준 라면 수출액 전년비 18% 증가…단일품목 기준 수출 1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aT가 미국 H마트와 진행 중인 '라면 특별 홍보판촉 행사'에서 현지인들이 한국 라면을 맛보고 있다.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북미 대륙을 겨냥한 'K-푸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T는 K-푸드의 대표격인 라면 홍보행사와 김치, 즉석밥을 이용한 요리 시연회로 북미 대륙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6일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미국 H마트와 '라면 특별 홍보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H마트는 미국 전역에 100여 매장을 보유한 유통기업으로, 이번 행사는 H마트 주요 매장 50개 점포에서 '친구와 함께 하는 K-라면(K-Ramyeon with Friends)'을 테마로 진행된다.

aT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라면 116여 종과 김치, 즉석밥 등 연관 식품을 콜라보한 시식 홍보행사를 병행해, 대미(對美) 주요 수출품목 간 수출 확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aT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2억 8000만 달러로 단일품목 기준 수출실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된 라면은 3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등 대표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라면은 휴대와 조리가 간편한데 더해 독창적인 매운맛을 가져 미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처 한국 라면을 접하지 못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라면 맛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노출시켜 수출 상승을 이끌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멕시코에서 'K-푸드 꾸러미'를 활용한 한식 시연회가 개최됐다.

aT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한글학교에서 김치와 장류, 즉석밥 등 한국 식재료로 구성된 K-푸드 꾸러미를 활용해 전문 셰프와 함께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현지인 120여 명이 요리시연에 함께 했는데 참가자 모집에 9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관심은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멕시코 농림축산신품 수출실적은 올 4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146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한식 인기는 멕시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뜨겁다. SNS를 활용해 사전 진행된 '나만의 K-푸드 레시피 소개 챌린지'는 지난 30일간 조회 수가 50만회를 넘어서기도 했다. aT는 이에 6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한식 레시피 시연 영상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가상현실 시연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멕시코에서 K-푸드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며 "K-푸드의 뜨거운 인기가 수출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경제와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광주전남본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강진변전소 등 합동 점검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지난 2일 강진변전소를 방문,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산업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문현철 숭실대 교수, 김준성 고려이엔시 부사장과 한전이 참여해 강진변전소 안팎의 위험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을 펼쳤다.

한전 광전본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조치결과를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 광전본부는 전력 설비로 인한 재난 사고 예방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올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일반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 개소 등 총 88개소를 대상으로 전력 분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강유원 광전본부장은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강진변전소를 사전 점검했으며, 지속적인 설비 점검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전KPS, 화력 계통 협력사 안전 강화 교육

한전KPS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나주 빛가람호텔에서 전국 화력사업소 경상정비 협력회사 근로자 50명과 함께 '제13차 화력 정비·안전 기반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KPS는 앞선 3년간 총 12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전설비 정비산업계 안전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협력사 현장 근로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화력발전 계통 ▲응급처치 요령 ▲산업재해 사례 ▲청렴 및 윤리의식 등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여 근로자들은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한전KPS 관계자는 "발전설비 정비산업계에서 산업재해 사전 예방 및 정비·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DN, 공공분야 입찰단합 근절 선포식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등 노력

한전KDN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석해 입찰담합 근절 의지를 다졌다고 6일 밝혔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최로 한전KDN을 비롯한 한국전력, LH,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관별 '입찰담합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자율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실천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중 공공부문이 44%를 차지하고 있어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적 예방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의 경과를 정리하고 실천을 각오했다.

공공기관장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 마련 노력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방지 규정 강화 ▲입찰담합 근절 지속 관리와 처벌강화 ▲입찰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기적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담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공정 입찰·계약 환경 조성과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